

“군산조선소 존치시키자” 전북도민 결의대회

각계각층 1만3000명 참가 도크 폐쇄 결정 철회 촉구 건조 물량 우선 배정 호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오는 6월로 예정되면서 군산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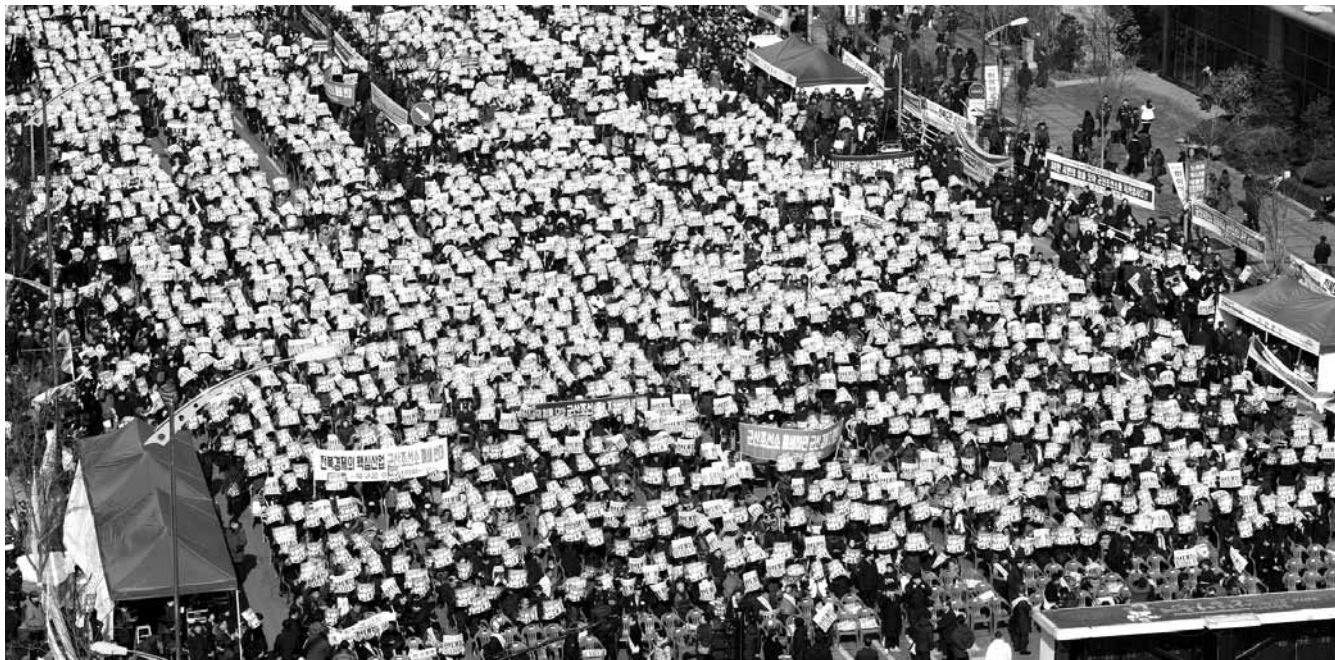
특히 군산을 비롯한 전북도내 전역에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총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존치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15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산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범도민 총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북도민들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 주최로 열린 이날 총결의대회는 군산시의 전복도, 도내 각 시·군, 국회의원, 각 정당별 대권주자, 도·시의원, 현대중공업 노조 및 협력사, 도내 기업체, 기관단체, 대학교, 재경향우회, 전북도민, 군산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1만3000여명이 참가했다.

지역민들은 이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현대중공업의 행태를 비판하고, 전북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와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여단체들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유지한 후 전북도와 함



지난 14일 군산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범도민 총결의대회'에 전북도민 1만3000여명이 참가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투자보조금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입도로 건설, 인근대학 조선학과 신설 등 현대중공업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면서 “가동중단에 따른 매출비용만 2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경제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또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을 넘고 수주잔액도 20조가 넘는 상황에서 올해 노르웨이로부터 2척의 선박을 수주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군산에 건조 물량을 우선 배정해 조선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북도민의 자존감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철회하고, 정부차원의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주요 대선주자를 상대로 군산조선소 존치를 공약·이슈화 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군산조선소와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도

크 가동중단을 막고 운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와 군산시의회, 군산상공회의소 등은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달 24일 범도민 서명부와 함께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전달했으며, 25일에는 서울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 대로변에서 릴레이 시위 출정식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과 대로변에서 릴레이 1인 퍼켓시위와 플래카드 시위에 돌입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팬오션, 군산~중국 청도항로 신규 개설

2월말부터 주1회 선박운항 도내 기업 물류비 18억 절감

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팬오션(주)이 군산~청도간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이달말부터 선박운항에 나선다. 운항구간은 군산~대산~청도 오~부산~광양을 왕복한다.

팬오션(주)은 1966년 범양전용선(주)로 최초 설립돼 지난 2015년 하림그룹계열에 편입되기까지 국내 벌크선 시장에서 최대 선사로 성장해왔다.

팬오션(주)은 2016년 말 기준 매출액 1조8193억원, 영업이익 1679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운시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군산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홍보와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번 군산~청도간 신규항로 개설은 지속적인 항로개설 요청과 수차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개설되는 군산~청도 신규항로는 도내 유리·금속·화학회사와 제지·기계부품회사 등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산~청도간 항로에 투입될 선박은 702TEU(1만298톤)급 선박으로 매주 금요일 군산항에 입항하며, 연간 6000TEU의 신규 물동량 유치가 기대된다.

특히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도 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로 물동량 감소상태인 군산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청도 신규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드림온사회복지회, 신입생 교복지원

청소년멘토링프로그램 및 교복나눔행사 2017. 2. 4.(토) 고령청소년문화의집 4층 다목적실



멘토링프로그램 함께 진행

(사)드림온사회복지회(대표 박성철)는 “최근 벌교읍행정복지센터와 고령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17학년도 신입생 교복지원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및 가정을 대상으로 교복교환권을 전달했으며,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됐다.

또 순천봉화로타리클럽(회장 이석호)과 순천아리랑로타리클럽(회장 정

복자)은 이번 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식을 했다.

(사)드림온사회복지회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회원들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 교복지원을 위한 일부 금액은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배우지양의 기부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증정한 교복교환권은 학교와 교복사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사)드림온사회복지회 사무국(1522-0131)으로 연락하면 된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소·돼지 외부 반출금지 전북도 20일까지 연장

전국에서 구제역이 확산하자 전북 지역 소·돼지 등 우제류의 외부 반출금지 시한이 연장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전북의 우제류 타 시·도 반출금지 시한을 당초 14일 0시에서 오는 20일 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도내 우제류는 전북도 관할 밖으로 일질 이동이 불가하다.

방역 당국은 축산차량에 부착된 GPS로 우제류 이동 금지 조치 위반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퍼지자 기존 발생 지역인 전북에서도 우제류 외부 반출금지 시한이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거금도농협, 발로 뛰는 농기계 순회수리 ‘큰 호응’

고흥 거금도농협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농기계 순회수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순회수리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운기와 관리기, 동력분무기 등 농기계 100여대를 점검·수리했다.

거금도농협은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지도사업비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순회수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농협경제지주 전남자치지원센터(센터장 박하원)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농기계부품장량을 지원받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현장에서 즉시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일 고흥 거금도농협조합장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영농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순회수리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중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마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온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근처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읍 주동리 주말농장적합 전 1101㎡ 매도 3900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임안산길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중용 11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침식비대 전담종용 1억4500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중용 남향방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투자·매도·교환

-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11296㎡ 요양시설·사찰 등 적합 4억5천
- 북구 망월동 버스도로점 1360㎡ 은행 3억7천 은행포함 5억5천
- 함평군 대동면 2차선점 남향 집종지 등 17673㎡ 요양원, 연수원, 기도원, 전원주택, 공장 등 다용도 건물 2동 있음 24억 협의합
- 대인동 중심상업지 580㎡ 사육·오이스텔 적합 평당 660만원
- 양동 원산리출수부근 상업지 367㎡ 주상복합 가능 5억
- 담양군 금성면 원월리 1488㎡ 첫집·기든 적합 1억9천
- 담양군 전변리 생산녹지 2968㎡ 차량통행 원월합 7억2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정용 1억천
- 강진군 용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찰·요양시설 적합 5억

상가건물

- 충장로5가 도로점 대지 265㎡ 건평 995㎡ 은행2억 매도 8억5천
- 남구 주월동 대지 1354㎡ 6층건물 4873㎡ 요양병원 250배도 적합 도로여건 좋음 김정 52억선 은행 33억 법인이전 45억
- 월산동 온진각부근 대지 160㎡ 4층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화정동 광주은행대지 235㎡ 2층건물 상가신축 적합 7억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김정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등바람
- 윤림동 중심상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유동 원림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택

- 월산동 대지 197㎡ 건평 257㎡ 인접과 투룸 등 5 개갯합 2억9천
- 월산동 보라아파트 부근 대지 96㎡ 주택 113㎡ 은행5천 매도 1억37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급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17층, 전망최고
- 29평, 사무실전용, 하천방향
- 내부시설 깨끗
- 시세 7천만 / 급매 5천만원
- 단, 입주는 5월가능
- 주인직매

H.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